

16/10/16(주) 주일예배 / 제목 : 일곱인봉 중 4~6인봉의 비밀들(계 6:7~17) p. 405

(7)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 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9)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12)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 같이 되며 (13)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15)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일곱인봉 중 4~6인봉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일곱인봉 중에 4인봉부터 6인봉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온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많이 예언하였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 전후에 있을 사건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예언된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많이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거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관점 속에서 4인봉부터 6인봉까지를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을 복습하면 첫째 인봉을 떼자 흰말이 나왔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썼으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복자를 말하는데 적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둘째 인봉을 떼자 붉은 말이 나왔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살육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셋째 인봉을 떼자 검은 말이 나왔고 말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는 기근시대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먹을 식량이 부족하여 심각한 경제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많은 세월의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세월의 간격으로 연달아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본론 / 일곱 인에 나타난 비밀들 (4~6인봉)

4. 넷째 인: 청황색 말 등장 (죽음의 시대) - (7~8절)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7~8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요한은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황색(yellow green)은 누르스름한 녹색으로서 시체가 썩어 부패할 때 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으니 곧 죽음의 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가 사망의 뒤를 따른다고 했는데 이는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같은 온갖 재앙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는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온역)과 땅의 짐승들로써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권세를 얻어’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땅의 사분의 일을 통제하는 막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은 '전쟁'을 상징하며, '흉년'은 '기근'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은 죽음의 특수한 형태인 '온역'을 말합니다(2:23; 겔14:21),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땅의 짐승들로써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짐승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짐승이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사분의 일인 약 17억 정도의 인구가 7년 대 환란의 초창기 때에 이미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땅의 짐승에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내용은 계시록 6장에서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마24장, 막13장, 눅21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 소개되고 있는 7인의 재앙과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마24장, 막13장, 눅21장)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할 것(마24:5)이라고 했고, 그 후에 전쟁(마24:6,7)과 기근(마24:7)과 온역(눅21:11)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하늘로서 큰 징조(눅21:11)가 있고, 또 성도들의 고난이 있을 것(눅21:12)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계시록 6장에도 똑같은 순서대로 이 재앙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7년 대 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말론 학자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가 결국에는 세계 정부의 등장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우리가 겪고 있는 자연의 재앙과 경제적 위기 같은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인의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인 말세지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인에 나타난 비밀들 (4~6인봉) 4. 넷째 인: 청황색 말 등장 (죽음의 시대) - (7~8절)

5. 다섯째 인: 순교자들의 울부짖음 (9~11절)

다섯째 인을 떼자 연달아 나오던 말들이 안 나오고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순교 당한 영혼들이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학자들 간에 약간 의견이 분분한 것은 이들이 교회 시대 전체 기간 동안에 순교한 성도들인가 아니면 7년 대 환란이라는 특정 기간 동안에 순교한 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7년 대 환란이라는 특정 기간 동안에 순교한 자들이라고 보는 첫째 이유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9절에 보면 순교한 자들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육체와 분리된 영혼을 표현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본문에 소개된 순교자들이 아직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7년 대 환란이 끝난 뒤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잠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 순교한 자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기 보니까 순교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 을 심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죽인 자들이 아직 땅에 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만일 교회 시대 전체 기간 동안에 순교한 영혼들이라면 그들을 죽인 자들은 대부분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지옥(음부)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기간에 순교한 자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주재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원래 종이 주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서 절대적 권력과 소유권을 가진 자에 대한 호칭입니다(딤후6:2; 딤후2:9). 그래서 본문에 사용된 이 칭호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셋째 이유는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11절 말씀에서는 순교자들을 죽인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잠시 유보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순교자들 안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13:15)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원해 달라는 이들에게 대답하시기를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7년 대 환란의 남은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날 것임을 명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순교할 자들을 이미 순교한 자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미 오래 전에 순교한 사람들이 아니라 동시대에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동무요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7년 대 환란이라는 특정 기간 동안에 순교한 자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이유는 흰 옷이 순교자들에게 주님의 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것은 영생과 승리를 보장해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계 19:8, 3:5). 그들은 성경의 진리와 순수한 신앙을 지켰으나,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단자로 몰리어 잔인한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당했으나 하늘에서는 가장 순결한 의의 상징인 흰 옷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인에 나타난 비밀들(4~6인봉)

4. 넷째 인: 청황색 말 시대 (죽음의 시대) - (7~8절) 5. 다섯째 인: 순교자들의 울부짖음 (9~11절)

6. 여섯째 인: 천재지변 (12~17절)

순교자들은 이미 승리를 획득했지만 아직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에게 상을 주실 때까지 잠시 무덤에서 쉴(잠잘) 것입니다(히11:39,40). 그리고 이들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여섯째 인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난 모습은 전무후무한 천재지변의 대재앙입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큰 소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먼저 큰 지진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12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1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12절상)**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천재지변의 첫 번째는 큰 지진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4:7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24: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물론 지진은 늘 있어 왔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또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도 지진은 있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지진과 그 피해 규모를 보면 과거보다 40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4년 동안에 지진으로만 죽은 사람이 무려 656,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큰 환난 때에는 이보다 더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큰 지진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지진을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지진은 땅만 흔들지 않고 온 우주를 흔들어서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 지진을 ‘큰 흔들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진이 있는 뒤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웠다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아마도 지축을 흔들고 지각의 변동을 가져오는 대 지진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일본에서 일어난 9.0의 지진으로 일본 열도가 원래 자리에서 5.3미터 옮겨지고 지구의 자전축도 약 16.5cm 옮겨지는 지각변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7년 대 환난 때 일어날 지진은 이보다도 훨씬 강도가 세고 지역도 일부지역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지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지진의 결과로 태양과 달이 빛을 잃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대 지각 변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하반기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12하~14절) “(12)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 같이 되며 (13)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이것은 이미 구약성경의 이사야서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34:4)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24: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천재지변의 두 번째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진다고 하였습니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진다는 말은 해가 어두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검은 털은 흑염소의 털을 가리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흑염소의 검은 털로 그들이 거주하는 장막을 만들기도 하고, 장례식에 입을 상복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세 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환난 때에도 하나님은 해가 그 빛을 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해는 어두워져서, 마치 흑염소의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집니다.

천재지변의 세 번째는 달이 온통 피 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단지 달은 햇빛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반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달도 온통 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재지변의 네 번째는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씀은 소행성들이나 유성들이 지구 궤도에 들어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별들은 유성과 혜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별들입니다.

이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별뿔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유성들인데 대부분의 유성들은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불타버리기 때문에 지구 환경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혹 그 규모가 너무 커서 대기권을 통과하고 땅에 떨어지는 유성들이 있어왔는데 그 때마다 유성이 떨어진 곳에는 산불과 해일과 같은 자연의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성들이 대규모로 지구에 접근해서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천재지변의 다섯 번째는 하늘도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고 하였습니니다. 이는 마치 두루마리에 말아 놓았던 종이가 이것을 펼쳐 놓아도 손을 놓아 버리면 다시금 말려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처럼 하늘이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말아 놓았던 종이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종이 축이 마리는 것같이 떠나갈 것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지구의 자전축을 옮겨 놓을만한 큰 지진이 일어난다면 그 지진의 여파로 한 순간에 지구의 자전이 빨라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땅에 있던 사람들이 하늘을 보게 된다면 하늘이 마치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빨리 움직였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재지변의 여섯 번째는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진다고 하였습니니다. 예수님이 여섯째 인을 떼시면, 큰 지진이 납니다. 또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집니다. 소행성이나 유성의 파편들이 쉴 새 없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 결과 지각의 대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산들이나 바다에 있는 섬들이 제 자리에서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16:20

말씀처럼, 일곱째 대접의 심판이 있는 후에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대로, 드디어 이 땅에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큰 환난은 마지막 한 이레의 후반부 삼년 반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엄청난 재앙으로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또 다른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불신자들은 숨을 곳을 찾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만일 오존층의 파괴로 사람의 피부를 태우는 태양광선이 여과없이 내리쬐게 된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이 재난을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곱 사람들의 유형은 각종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 불신앙의 최고 권력자, / 왕족: 상류층으로 사는 자, / 장군: 군대를 움직이고 전쟁을 지휘하는 자, / 부자: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 / 강한 자: 약자를 괴롭히고 업신여기는 자, / 모든 종: 헛된 것을 믿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 사는 자, / 자유인: 아무 것도 속박될 것 없는 일반인 / 이들은 인류의 대표들로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육신대로 살고 하나님과 원수 되는(롬8:7) 삶을 즐기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재림을 무시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때라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도리어 어리석게도 그들이 숨어 있는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와 같이 구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16~17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불신자들의 당황하고 공포에 질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포가 너무 커서 자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죽기만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계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했기 때문에 죽더라도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어서 계시록 20장 15절이 보면 **(계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천국에 올라가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불신자들은 왜 ‘어린 양의 진노’를 받는다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완악한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고 경고를 주고 돌아올 회개의 때를 무한정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고 반역한 이들에게 어린 양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는 너무도 크시기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재앙은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 일어날 엄청난

대재앙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무서운 재난을 피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를 휴거시켜 환란의 때를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신앙자와 준비되지 못한 성도들은 이 재앙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주셨으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15절에 보면 (벘후3:11~12)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벘전4: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미움을 사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핍박과 조롱이 있어도 심지어는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말씀은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부디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핵심 :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를 대비합시다.

요약정리 / 일곱 인에 나타난 비밀들 (4~6인봉)

1. 첫째 인: 흰 말 등장 (적그리스도의 출현) - (1~2절)
2. 둘째 인: 붉은 말 등장 (전쟁 시대) - (3~4절)
3. 셋째 인: 검은 말 등장 (기근 시대) - (5~6절)
4. 넷째 인: 청황색 말 등장 (죽음의 시대) - (7~8절)
5. 다섯째 인: 순교자들의 울부짖음 (9~11절)
6. 여섯째 인: 천재지변 (12~17절)